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여기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정당 지지도의 하락과 무당파의 증가

야당 지지 이탈과 안철수 기대감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이 끝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2012 선거패널조사 제3차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총선 직후에 비해서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총선 전과 비교할 때 새누리당은 5.4%P, 민주통합당은 8.8%P,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7.2%P 각각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에 비해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22.0%P 늘어났다.

이처럼 무당파 유권자층이 늘어난 것은 지지 정당을 선택해야만 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탓도 있겠지만, 총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했더라도 지지의 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통진당 지지자 이탈 심화

민주당 38.1%, 통진당 49.3% 무당파 선회

그렇다면 각 정당별로 어느 정도의 지지층이 ‘지지 정당 없음’으로 입장을 바꿨을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총선 전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이들 가운데 20.1%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38.1%,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현재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중북 논쟁이나 비례대표 경선 부정 등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현재 여러 후보가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민

주통합당의 경우 10명 중 거의 4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마음을 바꾼 것은 심각한 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존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마땅히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후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75.2%는 여전히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무당파 전환층의 안철수 기대감

그렇다면 지지하던 정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까? 〈표 3〉은 각 정당 지지로부터 ‘지지 정당 없음’으로 입장을 바꾼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 정당 지지로부터 지지정당 없음으로 입장을 바꾼 이들의 다수는 안철수 교수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후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하던 유권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54.3%의 유권자들만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28.3%는 안철수 교수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 지지는 1.8%였다. 민주통합당 지지로부터 지지정당 없음으로 입장을 바꾼 이들 가운데 54.7%는 안철수 교수를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는 12.0%에 불과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지지에서 지지정당 없음으로 입장을 바꾼 이들 가운데 42.3%는 안철수 교수, 34.7%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이들 가운데서 39.3% 역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안풍의 진원지, 반(反)정당여론이 지배하는 대선

그런 점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를 토대로 대선 투표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총선에서 지지했던 정당으로부터 이탈한 유권자의 비율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실망감이 확인된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총선 직후와

비교할 때 정당 지지도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진보 진영 정당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정치권 외부에 존재해 온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안철수 지지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1] 2-3차 조사 간 정당 지지율 변화

	총선 직후	3차 조사	차이
새누리당	39.1	33.7	-5.4
민주통합당	31.3	22.4	-8.8
통합진보당	10.2	3.0	-7.2
기타 정당	2.5	2.0	-0.5
지지 정당 없음*	16.9	38.9	22.0

*무당파=지지후보 없음+모름+무응답

[표 2] 2-3차 조사 간 정당 지지 이동

표의 이동 2차 ⇒ 3차		3차 조사 지지 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	선진통일	통합진보	무당파	계(n)
2차 조사 지지정당 (4.12-15)	새누리당	73.9	4.2	.7	1.1	20.1	100.0 (567)
	민주통합	6.4	51.8	2.0	1.8	38.1	100.0 (453)
	자유선진	16.7	16.7	-	8.3	58.3	100.0 (12)
	통합진보	2.7	26.4	18.2	3.4	49.3	100.0 (147)
	다른정당	15.4	11.5	3.8	23.1	46.2	100.0 (25)
	무당파	12.6	9.3	.8	2.0	75.2	100.0 (245)
Total		33.7	22.4	3.0	2.1	38.9	100.0 (1450)

[표 3] 정당지지 이탈자의 대선 지지후보 선호(%)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지지후보 없음	합(n)
새누리 ⇒ 무당파	54.3	28.3	1.8	1.3	0	0	13.5	100.0 (115)
민주당 ⇒ 무당파	14.6	55.3	12.0	2.8	1.7	0	13.6	100.0 (172)
통진당 ⇒ 무당파	7.8	42.3	34.7	2.9	4.3	0	6.7	100.0 (70)
무당파 ⇒ 무당파	22.7	39.3	13.5	1.6	2.5	0.5	19.8	100.0 (182)

EAI 여론분석센터 출판물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는 2012년 8월부터 주요 테마별 여론분석결과를 2-4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메모>시리즈를 발간한다. 주제별 심층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EAI 오피니언리뷰>(5-10페이지), 특정조사의 주요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10페이지 이상)와 함께 총 3종의 여론분석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학술적 연구결과를 담은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를 발간한다.

2012 EAI 오피니언메모(Opinion MEMO) 시리즈

- 제1호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의 복합성” 정원칠 (2012. 8. 24)
- 제2호 “정당 지지의 하락과 무당파 증가: 야당 지지이탈과 안철수 기대감” 강원택 (2012. 9. 4)
- 제3호 “박근혜 후보 지지층 확장의 과제 : 컨벤션 효과 크지 않았던 이유” 임성학 (2012. 9. 4)
- 제4호 “민주통합당의 딜레마: 안철수로 결집한 민주 지지자와 인물위주 선거” 박원호 (2012. 9. 4)
- 제5호 “2012년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선 안철수” 김준석 (2012. 9. 4)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09호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의 변화” 정한울 (2012. 2. 6)
- 110호 “2012 총선 · 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곤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 (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 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31)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민전(경희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8월 20 - 23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50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2.6\%$
패널유지율	72.5% (1차 조사 2,000명 기준)